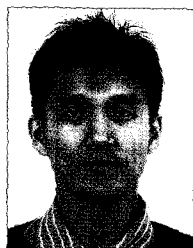


명품 닭고기 요리를 찾아라

# 건강한 국산 닭과 유향의 절묘한 만남 '산천진미'



송 병혁 과장  
(주)마니커 홍보팀

삶의 질에 대한 소비자의 요구가 높아지면서 음식은 이제 단순히 공한 배를 채워주는 먹거리를 넘어 오감을 충족시키고 건강을 유지하는 건강보조제의 개념으로 발전했다.

무항생제, 친환경식품과 같은 안전한 먹거리를 원하는 소비자들에게 우리 땅에서 자라 우리 몸에 좋고, 각종 독소 해독과 영양소가 풍부한 여름철 대표 보양식, 유향백숙의 건강함을 소개한다.

## 신토불이, 원재료부터 다른 웰빙 메뉴

“친구가 추천해서 왔어요. 이 음식점은 우리나라 청주에서 자란 국내산 닭만을 사용한다고 하더라고요. 원산지를 믿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안심인데 유향으로 영양까지 보충해주시니 일석이조라고 할 수 있죠.”

지난 5월 문을 연 장진천·손미경 부부의 '산천진미 충주 유향 누룽지 백숙'은 오픈한 지 한 달여 남짓이지만 이미 인근 지역 직장인들 사이에 웰빙 음식점으로 입 소문이 나있는



지난 5월 문을 연 '산천진미'

상태. 점심시간을 훌쩍 지났지만 묵직한 뚝배기 그릇을 하나씩 놓고 이야기를 나누는 손님들이 눈에 띄었다.

“처음엔 호기심으로 찾았어요. 유향오리는 아는데, 유향백숙은 생소했거든요.”

하루에도 몇 번씩 유향 닭이 무엇이라는 손님들의 질문에 손미경 여사는 “저희 음식점에서 제공하는 모든 닭은 신토불이 국내산으로, 그 원재료부터 건강합니다. 특히 열기와 독성을 빼준다는 유향을 먹여 기른 닭이라 손님들께서는 더욱 믿고 찾아주세요”라고 대답한다.

명품 닭고기 요리를 찾아라

## 건강한 국산 닭과 유향의 절묘한 만남 ‘산천진미’



국산 닭을 사용한 유향 누룽지 백숙

### 국산 닭의 자부심! 맛의 자부심!

장진천 사장은 몸에 좋고 맛도 좋은 웰빙 푸드를 찾던 중에 미용은 물론 성인병 걱정을 덜어주는 유향 닭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고 한다. 건강한 국산 닭만을 원재료로 사용하는 것 그리고 화학조미료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장진천·손미경 부부의 경영철칙이자 자부심이라

고, 조미료 대신 몸에 좋은 한약재를 사용하여 자연 그대로의 건강함을 전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그러한 과정에서 과도기 역시 있겠지만 보증된 먹거리인 유향백숙의 장점과 국산 닭의 자부심을 계속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유향은 몸 안의 쌓인 독소 해독작용과 풍부한 영양소를 공급해주는 것으로 높이 평가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닭 특유의 비린 듯한 냄새를 싫어하는데 유향 닭은 그런 냄새가 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닭의 맛이 고소하고, 불포화 지방산 함유량이 높아 여름철 다이어트에도 그만이라고 한다.

### 바른 먹거리를 위한 기본 지키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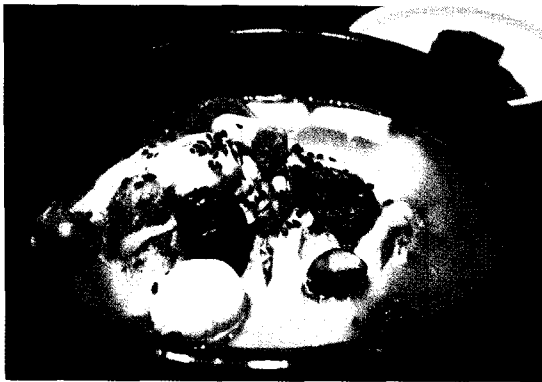
손미경 여사는 닭값이 비싸질 때도 믿을 수 있는 음식 그리고 더운 여름철을 건강하게 보내실 수 있도록 음식 값은 절대 올리지 않는다고 한다. 그리고 손님 한 분 한 분에게 눈을 맞추며 유향백숙에 대해 설명을 해드리고, 유향 누룽지 백숙을 드신 분들의 평가와 조언에 귀를 기울인다.

산천진미에서는 짧은 점심시간을 이용하는 직장인들의 건강을 위해 유향백숙 외에도 유향 닭으로 육수를 내리고 고명을 얹은 유향 닭 칼국수를 비롯, 강원도 정선에서 재배되는 유기농 나물로 만든 곤드레 나물밥을 제공하고 있다.

## 건강한 국산 닭과 유향의 절묘한 만남 '산천진미'



들어가는 입구가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다.



유향 누룽지 백숙 한 그릇이면 거뜬히 여름을 날 수 있을 듯하다.



직원들과 함께(가운데 손미경 여사)

손미경 여사는 “우리는 인증된 품질의 국산 닭만 사용한다는 자부심이 있죠. 눈앞의 이익만 따져본다면 값싼 수입산 닭을 이용하는 게 더 쉽죠. 더 많이 남고, 하지만 사람이 먹는 것이고, 먹어서 건강해져야 하는 게 음식 아니겠어요? 그저 정성이라는 기본을 지키는 게 원칙이에요”라며 소신있게 대답했다.

발암물질, 방부제, 납 성분 검출 등 값싼 외 국산 농축산물이 우리의 식탁을 위협한지 오래다. 음료는 물론이며 과자와 채소, 어류, 육류 등 수입산보다 토종 국내산을 찾기가 더욱 어려운 일이 되었다.

신토불이, 그저 우리 것이 좋다는 억지스러움이 아니다. 건강하고 안전한 우리의 바른 먹거리를 지켜나가자는 것. 그 기본을 이끄는 한 가운데 장진천·손미경 부부가 있다. <img alt="Small logo or icon" data-bbox="835 898 860 914"/>